

광산업 주요기관 2010년도 포부

한국광산업진흥회 2009 결산에 즈음하여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지난 한 해 동안 광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생산활동 및 마케팅에 열정을 다하신 회원사 및 지원과 협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새로운 시장수요창출을 위해 자동차·조선·의료·에너지·환경·IT분야에서의 융·복합 세미나를 정례화 하고, 광산업 CEO 기술경영 전문교육 등을 통해 기업이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광산업 선진국가보다 먼저 우위를 선점하고 미래시장트렌드를 파악함은 물론 지역별전략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신수종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광산업체 지원전략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나해부터 시작한 3단계사업에서는 LED조명 실증 및 광·IT융합 지식정보 인프라 개발사업, 광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LED 표준화사업 등을 통해 업체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며, 또한 국가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분야인 광기술기반 부품·소재산업 마케팅 및 국제협력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광산업 집적화 단체인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광산업, 조선 및 자동차 기자재업체, 농생물업체 등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개척하는 마케팅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광기술을 기반으로한 융복합 신산업화 추진 및 가격 경쟁력 향상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선도산업 중심의 글로벌 마케팅 거점 기반 형성과 부가치 창출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정보와 기술 동향 등을 제공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공동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 및 마케팅 전략을 펼쳐 경쟁력을 높이고, 업체가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며 한국광산업진흥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부터는 제2의 도약을 선포하고 한국의 광산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로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사업발전이 더욱 정진하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기술원

유은영 한국광기술원
원장



사랑하는 광(光)산업 가족 여러분!
새해 아침에 좋은 꿈들 꾸셨는지요?

경인년 한 해도 좋은 일들 넘쳐 나시고, 여러분 각자의 새해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9년은 한국광기술원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초 LED 분야의 국가 신성장동력 선정은 LED산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와 함께 이를 배출해낸 광산업클러스터의 분위기를 크게 고조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광산업 3단계(09~12년, 4년)의 첫 해를 맞은 광기술원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의 성과 확신을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R&D사업재원 확보면에서, LED분야의 약진을 발판으로 산업원천·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소재원천 등 중앙정부 주요 R&D사업을 수주하면서, 안정적인 R&D예산 확보와 동시에 R&D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 받았습니다. R&D사업실적면에서는, LED·LED조명제품 및 광모듈·부품, 초정밀광학분야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R&D 결과물이 다수 배출되었고, 21건(08년 10건)에 이르는 라이선싱 기술이전이 수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지원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공간 확장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기획 등 내실 있는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시험생산센터의 유휴장비를 활용한 수탁생산과 시험인증센터의 무진동 이동 차량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한국광기술원은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역시 R&D 및 기업지원 활동에 있어 더욱 더 발전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측면에서는 시장성 및 기술트렌드를 잘 고려하여 광(光)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험생산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입주기업과 방분활용기업을 확대하고 일류 제품 등록 및 표준생산기술공정을 확보할 것이며 시험 인증분야에서도 국제공인성적서 발급 가능 분야를 확대하는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역점 추진 사업인 "LED 조명 실증 센터 건립", "창업 보육 공간 확장 건립" 및 "산업용 레이저 핵심 부품 및 모듈 국산화 지원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광 관련 기업들에게 더욱 더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산업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모든 사람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귀처럼 광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 등이 힘을 합치고 광산업의 발전이라는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새해에도 한국광기술원이 광 관련기업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등광기술연구소 신년 설계

이인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소장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고등광기술연구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행복과 웃음이 가득 넘치는 보람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은 우리 연구소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해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연구소는 그 동안 땀흘려 쌓아온 탄탄한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계획했던 주요 성과들을 이뤄내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지원사업 11개를 동시에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연구소의 탁월한 연구역량을 과시한 데 이어,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의 레이저 출력을 500 TW(500조 와트)까지 끌어 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 과학기술 선진국과도 협력을 지속하며, 연구소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적 레이저 연구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발전의 든든한 축이 될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연구소 오픈랩(Open-Lab)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의 산업체 관계자분들을 초청하여, 연구소 활동을 직접 소개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상호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연구소는 핵심가치인 국가적 유용성과 세계적 탁월성을 추구 하며, 쉬지 않고 발걸음을 이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연구소의 아시안레이저센터가 주관하는 여름학교를 개최하여, 아시아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고, 역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의 레이저 출력을 1PW (1,000조 와트)까지 올려 세계 최고의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전 세계 100여명의 석학이 참가하는 X-선 레이저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국제학술교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며, 세계적 레이저 연구 중심지로서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나아가겠습니다.

11개 광학 전문 연구실을 중심으로, 국방, 환경, IT 등과의 다양한 학제적 연구를 추진하여, 선도적 기초기술 및 융합기술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유용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활동의 파트너인 산업계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상호 관심분야를 모색하여, 다양한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초미세레이저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술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연구소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내실있는 기업지원 활동을 펼쳐나아가겠습니다.

고등광기술연구소가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산업 주요기관 2010년도 포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강달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장



밝아 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희망의 밝은 빛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간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지역산업발전을 위하여 심 없이 달려온 노력의 성과가 차츰 나타나는데 합니다.

과거 10년전으로 되새겨 보면 이렇다 내새울 것 없이 텅텅 비어있던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기업체 448개사가 빼곡히 자리를 잡았으며, 한국광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관련분야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기업체 옆에 든든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자리한 산업단지내 기업체들이 점점 그 성장에 가속이 붙어 지역의, 해외에서도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광산업의 메카로 확고히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역점을 두고 집중 육성해 온 '광산업'이 매출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업관련 기업체수도 10년 47개사에서 현재는 337개사로 증가했으면 고용인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광산업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성숙되어가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산학연이 유기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체 중심으로 산-산, 산-연, 산-관 등 다양한 활동의 결과이며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산업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중심의 클러스터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를 거점단지로 지정하고 광주지역내 산업단지를 연계단지로 지정하여 광역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광역권 연계사업 발굴과, 지식산업 집적화 활성화, 뿐만아니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중대형 R&D과제보다는 기업활동의 실질적 매출 성장에 집중한 산학연협력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기업체 자생적으로 성장 가능

한 모델로 단계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인 광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광산업클러스터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가 더욱 광산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곳곳이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기업체와 유관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재)광주디자인센터

윤광호

(재)광주디자인센터
원장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마다 더욱 건승하시고 다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주디자인센터 임직원은 광 관련 산업체의 무궁한 발전과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해에도 많은 기업인 여러분들은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을 위하여 어떻게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것이 화두일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품의 경쟁력은 기술과 품질보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눈에 띄입니다. 중국의 조선산업 수주가 한국을 앞지르고 세계 1위라는, 중국의 기술력이 놀라게 발전하고 있다는 기사 등... 국내 유력 일간지는 최근 1면 기사에서 "차이테크(China+Technology)의 공성이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전문가들도 "중국은 과거 한국이 일본을 추격한 것보다 몇 배 이상 빠르게 선진기술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빠른 성장속도가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가', '저질' 중국산이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른바 '뉴센드위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으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디자인 파워'는 고객의 감성에 불을 지피는 힘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 비춰 광주디자인 센터를 건립한 것은 당시 10년 후를 예측한 박광태 광주시장(당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지방의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와 디자인이 결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주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전국 최초로 개원한 광주디자인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확대 등 지역산업 고도화, 생산성·매출 증대로 고용창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꾀하는 등 착실한 성과를 거두며 '국토서남권 디자인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여러분의 기업활동과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디자인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기업지원서비스사업, 광 응용 디자인 개발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 하우징자재혁신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 브랜드디자인개발지원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광주디자인센터가 여러분의 사업이 '빛 날'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전략 학자인 톰 피터스는 "미래는 꿈 꾸는 자의 것이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꿈이 이뤄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

강창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장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2010년 경인년(庚寅年) 범띠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작년은 소띠 해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소처럼 참고 견디었다면 2010년에 호랑이의 힘찬 기운과 같이 한 단계 도약·발전 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에게 행운의 기상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생기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에 많은 일

들이 있었습니다. 생기원 본연의 임무인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기능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용 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실시간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본부의 "Solar City Center"가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3월25일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모시고 성황리에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고 국가적 성장동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핵심인프라로서 중소기업체 누구나가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생기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는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빛 고을 광주에 터를 잡은 후, 지역 중소기업 현장 속에 단단히 뿌리 내리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나노 기술분야의 관련 부품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생기원의 강점인 생산기반기술 분야 또한 저희가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품질 등 중소기업의 신뢰성 인증을 년 10,000여건 이상 지원하며 나노기술집적센터, 금형 TRYOUT센터 등 모든 시설과 장비를 기업들에게 개방하여 하루 평균 30~40개 업체가 생기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를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중소기업체의 매출증가와 직결될 수 있는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 지역 미래 자동차산업 부흥에 역량을 집중시켜 친환경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것 입니다. 현재 기획이 마무리 되는 데로 박차를 가해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핵심부품 및 상용화 시스템개발, 자동차부품 소재 업체 밀착 연구 및 기술지원과 더불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집적지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지역의 새로운 미래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곧 생기원의 성장이라는 소신을 갖고 지역 중소기업들과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